

2020년 미국 대선 분석: 코로나 위기 상황과 인종 차별 반대 시위를 중심으로

서정건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2020년 미국 대선은 현직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하는 경우로 최근 24년간 지속된 “현직 대통령 불패 신화”가 이어질 것인지, 예측 불허 트럼프 대통령이 4년 더 임기를 이어갈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그런데 코로나 비상 상황으로 인해 민주당의 후보 선출 스케줄이 꼬여 버림에 따라 대통령이 도전자를 조기에 집중 공격하여 눌러 앉히는 전략은 일단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두 후보를 비교하는 ‘선택(choice) 선거’가 아닌 현직 대통령에 대한 ‘신임 투표(referendum),’ 즉 트럼프 선거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또한, 전국에 걸쳐 폭발적으로 벌어진 흑인 차별 반대 시위에 대한 대응책으로 통합이 아닌 분열을 택한 대통령 리더십에 대해 새로운 반대 조류가 형성 중인데 의회 입법과 대선 국면으로까지 이어질지도 궁금한 대목이다. 한편 올해 하반기에 만일 코로나 사태가 안정된다면 그리고 만일 북한 핵무기가 다시 한 번 미국 정치의 이슈로 부상한다면 새로운 북미 관계 전개 가능성이 있다. 김정은 위원장과 의 1대1 이벤트 관련 트럼프 대통령의 노림수가 대선 시기까지 변수이자 상수로 남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재 미국의 각 주(state)들이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우편 투표 제도를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11월 3일 대선 당일 승패 여부가 가려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선거 개표가 진행되면서 도시 지역에서의 민주당 몰표가 나올 확률이 큰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후보에게 경합주에서 역전 당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트럼프와 열혈 지지층이 이를 쉽게 승복할지 알 수 없는데 예상보다 빨리 공화당 지도부가 트럼프를 포기하게 될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올해 미국 대선은 코로나 사태라는 새로운 위기, 인종 차별 반대 시위라는 오래된 위기, 우편 투표 확대라는 새로운 선거 등 다양하고 복잡한 요소가 중첩된 또 한 번의 예측 불허 선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목 차

- I. 서론: 새로운 혼란과 오래된 위기, 그리고 미국 대통령 리더십
- II. 코로나 위기와 미국 정치: 새로운 혼란과 오래된 정치?
 - 1. 트럼프는 나쁜 대통령(out-of-touch president)이 될 것인가?
 - 2. 트럼프는 코로나 사태의 희생양이 될 것인가?
 - 3. 트럼프의 성급한 판단과 잘못된 리더십이 문제될 것인가?
 - 4. 트럼프는 코로나 이후 양극화가 완화되면서 중도층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인가?
 - 5. 최근의 코로나 재증폭 위기는 트럼프에 대해 다른 평가를 초래할 것인가?
- III. 인종 차별 반대 시위와 미국 정치: 오래된 위기와 새로운 정치?
- IV. 미국 대선과 한반도 이슈: 오래된 위기와 오래된 정치?
- V. 2020년 미국 대선: 새로운 위기와 새로운 선거?

통상적으로 보아도 과열 경쟁을 겪게 마련인 대통령 선거 해인 올해 2020년 미국은 이전에 전혀 겪어 보지 못한 새로운 위기(코로나 위기)와 건국 이래 끊임없이 겪어 온 오래된 위기(인종 차별)를 상반기에 한꺼번에 겪고 있는 중임

I. 서론: 새로운 혼란과 오래된 위기, 그리고 미국 대통령 리더십

- ◆ 1789년 조지 워싱턴을 대통령으로 선출한 이래 미국은 단 한 번도 대통령 선거(presidential election)와 중간 선거(off-year election)를 건너 뛴 적이 없는 선거의 나라라고 부를 수 있음. 이러한 미국 정치의 속설 가운데 하나가 “선거가 있는 해에는 좋은 정책을 만들기 어렵다”는 표현임. 당선과 낙선을 둘러싸고 첨예한 경쟁을 벌이는 선거 연도에 후보들이 타협과 협상을 필요로 하는 정책 만들기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이유가 가장 큼. 동시에 선거 이후 펼쳐질 정국 방향을 가장 예측하기 불확실한 선거 해에 주요 정책 결정을 내리기는 어렵다는 현실론이기도 함
- ◆ 이처럼 통상적으로 보아도 과열 경쟁을 겪게 마련인 대통령 선거 해인 올해 2020년 미국은 이전에 전혀 겪어 보지 못한 새로운 위기(코로나 위기)와 건국 이래 끊임없이 겪어 온 오래된 위기(인종 차별)를 상반기에 한꺼번에 겪고 있는 중임. 여기에 더해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심화되어 온 정치 및 사회 양극화(polarization)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는 커녕 오히려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부추기는 대통령이 통치하고 있는 리더십 위기 또한 겪고 있음
- ◆ 선거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최근 동향을 살펴보자면 1992년 클린턴 당선 이후 미국 대선은 현직 대통령 재선 불패 현상을 이어오고 있는데 이는 매우 드문 현상임. 다시 말해 클린턴 8년, 부시 8년, 오바마 8년 등 현직 대통령이 세 번 연속 재선에 성공한 사례는 미국 역사상 1801-1824년 제퍼슨(Jefferson), 매디슨(Madison), 먼로(Monroe) 밖에 없을 정도임
- ◆ 이와 관련된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 하나는 24시간 케이블 뉴스 TV와 인터넷,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 미디어 위주로 커뮤니케이션 환경이 바뀐에 따라 현직 대통령 측 선거 전략가들이 이를 활용하여 대선 도전자 라이벌을 애초부터 집중적으로 공격할 수 있게 된 측면이 강함. 경쟁자에 의해 자신의 정치적 이미지가 정의되는 것은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되기 마련인데(“Don't let your opponent define you!”) 대선의 본선 경쟁이 본격화하기도 전에 현직 대통령의 선거 전략에 의해 라이벌 도전자의 정치적 입지가 크게 약화되어 옴
- ◆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1996년 공화당 대선 도전자였던 돌(Dole) 상원의원은 경선 과정을 거치며 극단적 강경파 깡그리치(Gingrich) 하원의장과 이미지가 한 통속으로 클린턴에 의해 엮인 바 있음. 2004년 민주당

대선 도전자였던 케리(Kerry) 상원 의원 또한 포스트 9/11 시대에 부적절한 유약한 후보로 부시 대통령이 일찍 낙인찍혔음. 2012년 공화당 대선 도전자였던 롬니(Romney) 주지사도 2008년 금융 위기를 불러일으킨 전통 공화당 주류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오바마 대통령이 몰아매는데 성공함으로써 제대로 된 경쟁을 벌여보지도 못했음

*커뮤니케이션 환경이
바뀐에 따라 현직 대통령 측
선거전략가들이 이를 활용하여
대선 도전자 라이벌을 애초부터
집중적으로 공격할 수 있게 된
측면이 강함*

- ◆ 한편 1980년대 이후 정치 양극화가 급속도로 심화됨에 따라 정당 간 선거 경쟁이 치열해 지고 경합주(swing states) 승리와 정치 광고를 위한 정치 자금 확보가 더욱 중요한 변수가 됨. 이 두 가지 요소에 있어 현직 대통령 프리미엄이 작용한다고 볼 수 있음(예: “issue-uptake” 이론, 트럼프의 정치 자금 모금은 민주당 후보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음). 다만 1996년(Dole 패배), 2004년(Kerry 패배), 2012년(Romney 패배) 선거 모두 미국 정치판을 새로 재편하는 소위 “중대 선거(critical elections)”라고 보기는 어려움
- ◆ 올해 2020년 미국 대선 역시 현직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하는 경우로 최근 24년간 지속된 패턴이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을 뿐 아니라 기존 미국 정치와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여 4년 더 임기를 채울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됨
- ◆ 다만 이전의 패턴과 분명히 다른 점은 코로나 비상사태로 인해 정치 스케줄이 꼬여 버림에 따라 현직 대통령 트럼프가 떠오르는 상대 정당 도전자 바이든을 일찌감치 눌러 앉히는데 사실상 실패하였다는 정황을 꼽을 수 있음. 코로나 사태가 터진 이후 바이든 후보가 잠행에 가까울 정도로 선거 운동을 자제한 측면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후보를 자신의 입맛에 맞게 골레를 씌우는데 성공하지 못함
- ◆ 결국 2020년 미국 대선은 지난 3번의 현직 대통령 재선 과정과 달리 두 후보를 비교하는 ‘선택 선거(choice election)’가 아닌 현직 대통령 트럼프에 대한 ‘신임 투표(referendum election)’로 흐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짐. 또한 2020년 6월 현재 여론 조사 결과 “트럼프를 낙선시키기 위한(70퍼센트)”이 “바이든이 좋아서(30%)”에 비해 현격히 높은 민주당원들의 바이든 지지 배경으로 드러남. 이는 이번 선거가 “트럼프 중심 선거(Trump election)”로 귀결될 가능성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음
- ◆ 물론 올해 하반기에 트럼프가 헌터 바이든(Hunter Biden) 혹은 바이든 성추문, 그리고 향후 바이든의 캠페인 실언(gaffe) 등을 효과적으로 공론화함으로써 바이든의 약점을 파고 든다면 다시 한 번 이전의 “선택 선거” 패턴으로 돌변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움

*이전의 패턴과 분명히 다른 점은
코로나 비상사태로 인해
정치 스케줄이 꼬여 버림에 따라
현직 대통령 트럼프가 떠오르는
상대 정당 도전자 바이든을
일찌감치 눌러 앉히는데
사실상 실패하였다는 정황을
꼽을 수 있음*

*이번 선거가
“트럼프 중심 선거
(Trump election)”로
귀결될 가능성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음*

II. 코로나 위기와 미국 정치: 새로운 혼란과 오래된 정치?

정치 영역이 사회 및 경제 분야 변화에 대응하여 달라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 차이(lagging)가 발생한다는 정치의 기본 원리가 간과되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음

- ◆ COVID-19 사태에 대해 국내외적으로 획기적인 변화, 예측 불허의 전환 등을 주제로 많은 전망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동시에 정치 영역이 사회 및 경제 분야 변화에 대응하여 달라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 차이(lagging)가 발생한다는 정치의 기본 원리가 간과되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음
- ◆ 예를 들어 경제 대공황 발생 이후 뉴딜 대책이 등장하기까지는 무려 3년 6개월 가까이 시간이 걸렸음. 1929년 10월에 발생한 경제 대공황(Great Depression) 당시 주식 시장의 폭락과 천정부지로 치솟은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치가 취한 조치는 1930년 스무트(Smoot)-홀리(Hawley) 관세 법안 통과였고 이는 대공황을 해결하기는커녕 전 세계로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버 대통령 임기(1929.3-1933.3) 내내 자유방임식 시장 중심 접근법이 사용되었고 1933년 3월 4일 FDR 취임 이후야 뉴딜이 추진되기 시작함
- ◆ 1932년 이후 뉴딜을 받아들인 온건파 아이젠하워를 영입하고 나서야 공화당은 20년 만에 대권을 되찾았고 1980년 레이건에게 정권을 넘긴 민주당은 뉴딜을 대체하는 New Democrat 슬로건을 도입한 클린턴 후보를 통해서야 12년 만에 대권을 다시 찾아옴. 1980년대 이후 심화된 현재의 양극화 시대에는 현직 대통령 불패와 8년 후 정권 교체라는 주기적 현상을 초래함으로써 미국 정치의 근본적 변화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음
- ◆ 따라서 2020년 미국 대선을 전망함에 있어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미국 정치와 선거의 변수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고 실제로 코로나 시대로 인해 달라질 것인지 아니면 코로나 시대 이전과 대동소이한 양상으로 이번 대선이 치러질 것인지 구별해 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1. 트럼프는 나쁜 대통령(out-of-touch president)이 될 것인가?

- ◆ 2020년 6월말 현재 12만 5천명 이상이 사망하고 지난 10년간 창출된 미국 내 일자리가 코로나 위기 한 달 만에 모두 사라졌다는 분석이 있을 정도로 미국 사회와 경제는 코로나 비상사태를 맞아 급격한 위기에 처해 있음. 그런데 이러한 코로나 사태를 정책적 실패(policy failure)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일종의 예측 못한 자연적 참사(natural disaster)로 볼 것이냐

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있을 수 있음. 만일 정책 실패라면 2008년 부시의 이라크 전쟁 실패와 금융 위기 당시와 비슷한 양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자연 참사라면 2012년 오바마 대통령이 리더십을 발휘했던 허리케인 샌디 상황으로 귀결될 수도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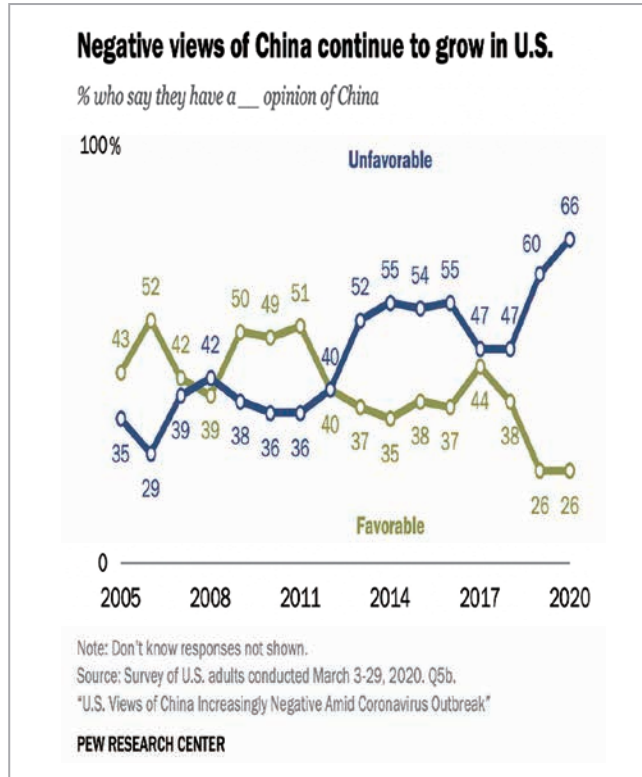
- ◆ 요점은 경제가 급격히 나빠지는 현재 상황에서 1992년 당시 적극적인 대처를 소홀히 했던 아버지 부시와 지금의 트럼프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냐의 문제임. 트럼프 백악관은 이미 재난 대비 현금(cash payment)을 나누어 주었고 하원 민주당과 결탁하여 재난 지원 법안 CARE Act에 이어 CARE 2 Act를 협의 중임. 따라서 다른 문제에 정신이 팔린 나머지 나빠지고 있던 경제를 도외시한 “무관심 대통령(out-of-touch president)”이라고 트럼프가 비판받게 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아 보임

다른 문제에 정신이 팔린 나머지 나빠지고 있던 경제를 도외시한 “무관심 대통령(out-of-touch president)”이라고 트럼프가 비판받게 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아 보임

2. 트럼프는 코로나 사태의 희생양이 될 것인가?

- ◆ 앞서 언급한 경제 대공황 당시 미국 국민들은 1932년 대선에서 프랭클린 루스벨트라는 대안 후보를 선택 했다가보다는 후버라는 현직 대통령에 대해 위기의 책임을 묻는 희생양으로 삼았다고 평가할 수 있음. 왜냐하면 1932년 대통령 선거 기간 내내 루스벨트가 뉴딜(New Deal) 정책 플랜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1933년 3월 4일 취임사에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뿐(Only thing we have to fear is fear itself)”이라는 다소 막연한 슬로건에 치중하였기 때문임
- ◆ 또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1837년 미국 최초의 경제 위기 상황(Panic of 1837)에서 밴 뷰렌(Martin Van Buren) 대통령은 임기 내내 효과적인 위기 해결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고 결국 1840년 대선에서 미국 유권자들은 갓 창당된 휘그당(Whig)의 해리슨(Harrison) 후보에게 압승(234 대 60)을 안겨 주었음. 결국 밴 뷰렌 현직 대통령이 거대 경제 위기의 희생양이 된 또 다른 예임
- ◆ 그렇다면 트럼프는 코로나 사태의 책임을 지는 희생양이 될 것인가가 문제인데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중국 책임론과 WHO 연루설을 부각시키고 있는 트럼프와 이러한 트럼프 입장을 적극 옹호중인 보수 미디어 Fox News Channel로 인해 이번 대선에서 국민들이 단합하여 트럼프를 희생양으로 삼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아래 여론 조사가 보여주는 것처럼 코로나 이전부터 상승하던 중국에 대한 비호감은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와 관련하여 민주당 바이든 후보조차 비슷한 중국 때리기 입장을 보이고 있기도 함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중국 책임론과 WHO 연루설을 부각시키고 있는 트럼프와 이러한 트럼프 입장을 적극 옹호중인 보수 미디어 Fox News Channel로 인해 이번 대선에서 국민들이 단합하여 트럼프를 희생양으로 삼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출처: Pew Research Center

3. 트럼프의 성급한 판단과 잘못된 리더십이 문제될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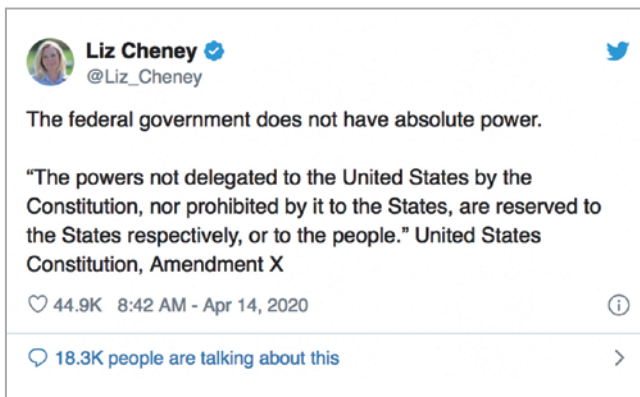
◆ 미국 주류 언론에 의해 신랄하게 지적되었던 것처럼 의료 및 과학 전문가들을 무시하고 선불리 각 주의 경제 활동을 재개하라는 트럼프의 re-opening 독촉과 마스크를 쓰지 않는 잘못된 리더십에 대해 미국 국민들이 11월에 가서 심판할 것인가의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음

대통령 트럼프의 최대 특징은 비즈니스 출신답게 꼬리를 내려야 하는 시점에서는 바로 꼬리를 내린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해 결집된 비판과 이탈을 조기에 희석시키는 능력을 보여 왔음

- ◆ 대통령 트럼프의 최대 특징은 비즈니스 출신답게 꼬리를 내려야 하는 시점에서는 바로 꼬리를 내린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해 결집된 비판과 이탈을 조기에 희석시키는 능력을 보여 왔음. 트럼프 경우 역대 미국 대통령들이 통상적으로 심판받던 양상과 이 점이 크게 다르다고 볼 수 있음
- ◆ 예컨대 각 주의 경제 재개 판단 및 결정 권한이 본인에게 있다고 주장했다가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보수 내부에서도 비판받자 경제 재개 주장을 더 이상 밀어붙이지 않았음. 아래의 트윗은 전 부통령 딕 체니의 딸이자 하원 공화당 서열 3위인 리즈 체니 공화당 하원 의원이 올린 것으로 수정

헌법 10조를 명시함으로써 주정부에 권한이 있음을 보여주고 트럼프를 에둘러 비판한 내용을 담고 있음

- ◆ 다른 모든 정책 분야에서 트럼프 열혈 지지자인 체니 의원마저 이러한 지적을 하는 것에 대해 트럼프는 비교적 재빨리 자신의 입장을 바꾸는 성향을 보여 줌. 심지어 조지아 주지사의 경제 재개 결정이 성급했다고 공개 비판에 나서기도 할 정도임. 더구나 코로나 사태는 미증유의 사건으로 보건과 경제를 둘러싸고 어떤 판단이 옳은 판단인지 누구도 선불리 단언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트럼프의 코로나 대응 관련 논란들이 11월 대선에 가서 집중적으로 비판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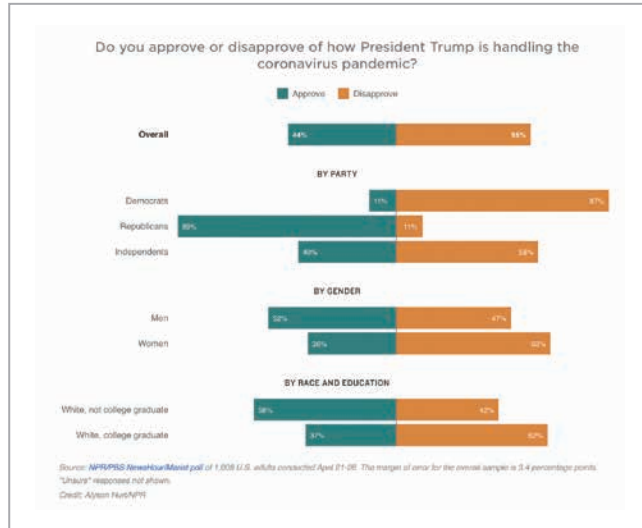
출처: Twitter

4. 트럼프는 코로나 이후 양극화가 완화되면서 중도층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인가?

- ◆ 현재 코로나가 극심한 상황 속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 대응에 대한 미국 국민들의 평가는 양극화 시대 양상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만일 국민들이 구체적인 정책적 요구를 제기하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방관하는 경우라면 문제가 되겠지만 실제로 코로나 검사(testing) 혹은 감염자 추적(tracing) 모두 뉴욕 주지사 등 주(州) 정부가 주도하며 책임을 지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시점에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있을 법한 양극화 완화 및 중도층 증가가 현실적으로 발생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 의견이 여전함
- ◆ 아래 여론 조사는 트럼프의 코로나 대응에 대한 민심이 양극화 이전에 보여준 대통령에 대한 전반적 평가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보여 줌. 공화당원들의 절대적 지지, 민주당원들의 절대적 반대, 남성보다는 여성 유권자들이 트럼프를 반대, 고졸 백인 그룹이 트럼프를 적극 지지 등 코로나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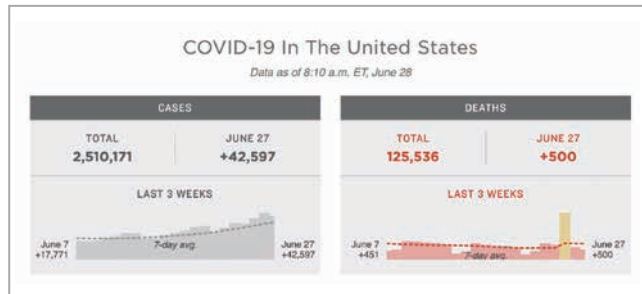
현재 코로나가 극심한 상황 속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 대응에 대한 미국 국민들의 평가는 양극화 시대 양상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인해 트럼프에 대한 평가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상황임. 물론 후술하는 것처럼 2차 대폭발 조짐을 보이는 현 시점에서의 평가는 다소 달라지는 측면이 있음



출처: www.npr.org

5. 최근의 코로나 재증폭 위기는 트럼프에 대해 다른 평가를 초래할 것인가?



출처: www.npr.org

◆ 2020년 6월 말 현재 텍사스, 애리조나, 플로리다 등 몇몇 주의 성급한 경제 재개와 봉쇄 해제로 인해 미국의 코로나 팬데믹이 2차 대폭발 상황으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은 마치 백인 경찰에 의해 살해된 조지 플로이드 (George Floyd) 사태가 촉발한 인종 차별 반대 시위로 인해 트럼프의 대통령 리더십에 보다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된 것과 유사한 측면이 있음

◆ 지난 3월 이후 전개된 최초의 코로나 위기 당시에는 뉴욕 주 사태가 가장

심각하게 인식되었고 온 국민이 이전에 겪어 보지 못한 대규모 바이러스 감염 사태를 둘러싸고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 제대로 평가할 시간과 맥락이 다소 부족하였다고도 볼 수 있음. 그런데 최근 들어 성급하게 경제를 다시 재개하라고 촉구한 대통령의 상황 인식, 그리고 스스로 마스크를 쓰지 않음으로써 잘못된 보건 메시지를 보내는 대통령의 행태 등에 대해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는 상황임. 심지어 트럼프 추종자인 맥코넬(Mitch McConnell)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도 마스크는 꼭 쓰도록 권고함으로써 트럼프와 다른 입장을 취함. 비판 여론이 급등하자 트럼프는 7월 초 비로소 “마스크 대찬성(I’m all for masks.)”이라고 밝힘

*최근 들어 성급하게
경제를 다시 재개하라고 촉구한
대통령의 상황 인식, 그리고
스스로 마스크를 쓰지 않음으로써
잘못된 보건 메시지를 보내는
대통령의 행태 등에 대해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는
상황임*

- ◆ 트럼프 열혈 지지자들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봉쇄 조치(lock-down)나 마스크 착용을 여전히 큰 정부가 일반 시민에게 강요하는 자유 박탈로 이해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코로나 위기의 본질과 대응에 대해 공동체 정신이 필요하다고 차츰 인식하게 된 미국 시민들이 늘어가는 추세와 무관하지 않음. 대통령의 판단 능력과 리더십에 대해 근본적인 불안감과 의구심을 가지는 유권자가 2차 팬데믹 유행과 더불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점은 분명해 보임
- ◆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미국 대선인 11월 3일까지는 아직 4개월이 남았고 미국 정치 특성상 앞으로 무슨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2차 팬데믹이 트럼프 위상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는지에 대해 성급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옳지 않음. 예를 들어 치료제가 개발되고 9월과 10월 두 달 정도 경제가 회복되는 조짐을 보인다면 이전의 트럼프 대응 실책과 실언이 어느 정도 상쇄될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함

*2차 팬데믹이
트럼프 위상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는지에
대해 성급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옳지 않음*

III. 인종 차별 반대 시위와 미국 정치: 오래된 위기와 새로운 정치?

- ◆ 지난 5월 25일 미니애폴리스 시에서 발생한 백인 경찰의 흑인 목 압박 및 살해 사태는 주변에 지나가던 행인들이 비디오를 촬영하고 공개하면서 미국 전역에 걸친 대규모 항의 시위로 번짐. 특히 살해된 조지 플로이드(George Floyd)가 마지막까지 “숨을 쉴 수 없다(I can’t breathe)”라며 고통을 호소하는 영상은 1992년 흑인 로드니 킹이 백인 경찰들에 의해 집단 구타되던 장면을 연상시키면서 당시의 LA 폭동 및 재미 한인 사회의 어려움, 그리고 현재의 미국 내 소수 인종 간 관계 정립 필요성을 다시 알리는 계기도 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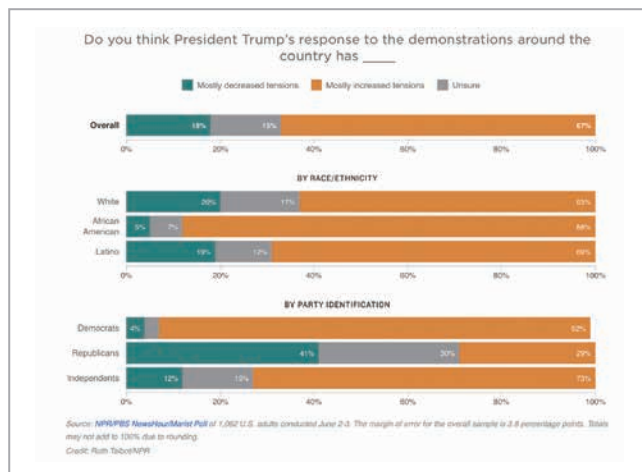
◆ 남부 흑인 소유에 대한 건국 헌법의 인정, 남북 전쟁으로 귀결된 노예 제 갈등, 남북 전쟁 패배 이후에도 주로 미국 남부에서 흑인 차별을 공식화했던 짐 크로우(Jim Crow) 법, 1964년 인권법(Civil Rights Act) 의 회 통과로 시작된 남부 백인층의 민주당 이탈 등 미국 역사의 상당 부분을 점철해 온 흑인에 대한 인종 차별 문제는 앞서 살펴 본 전대미문의 COVID-19 사태와는 다른 성격인데 그야말로 미국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위기라고 볼 수 있음

◆ 분노에 찬 전국의 시위대 일부가 초기에는 경찰차를 불태우고 상점을 약탈하는 등 무법천지의 시위 행태를 보였고 보수 언론 Fox News 등은 이를 집중적으로 보도함으로써 백인 경찰의 흑인 차별이라는 문제의 본질이 가려지고 법과 질서(law and order)를 외치는 트럼프의 대응법이 지지층 결집에 효과를 거두는 듯 보였음

군대를 동원하고자 시도한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 미국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이 동시에 비판적 태도를 보임으로서 트럼프의 선거 해 중대한 자충수가 될 수도 있는 상황으로 변해감

◆ 그러나 이후 시위대가 주로 낮에 평화 시위만을 진행함으로써 시위대에 쏟아졌던 비판과 우려는 거의 사라지게 되었고 반대로 평화 시위를 옹호하며 군대를 동원하고자 시도한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 미국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이 동시에 비판적 태도를 보임으로서 트럼프의 선거 해 중대한 자충수가 될 수도 있는 상황으로 변해 감. 아래 최근 여론 조사는 적어도 트럼프 대응이 인종 차별 반대 시위로 인한 혼란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는 미국 내 일반적 인식을 보여 주고 있음. 다만 공화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트럼프 덕분에 긴장이 완화되었다는 인식이 보다 우세함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미국 보수 미디어 폭스 뉴스와 보수 유권자들의 밀착 관계를 다시 한 번 유의하여 살펴보아야 하는 이유를 제공한다고 봄

공화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트럼프 덕분에 긴장이 완화되었다는 인식이 보다 우세함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미국 보수 미디어 폭스 뉴스와 보수 유권자들의 밀착 관계를 다시 한 번 유의하여 살펴보아야 하는 이유를 제공한다고 봄



출처: www.npr.org

◆ 다만 이 시기(2020년 6월말)에 트럼프에게 불어 닥친 정치적 역풍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음. 자신의 안보 보좌관이었던 볼턴(Bolton)이 자서전 발간을 통해 트럼프의 무분별한 외교 리더십 및 무능력한 통치 리더십을 폭로하였고 트럼프가 폐지를 결정한 오바마 시대 이민 구제책 DACA(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에 대해 미국 연방대법원(SCOTUS)이 불허 결정을 내렸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개최한 트럼프 장외 집회(Trump Rally) 당시 예상보다 훨씬 적은 인원 참석으로 인해 망신을 당하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인종 차별 반대 시위가 11월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치명타를 입힐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분명한 측면이 있음. 무엇보다 플로이드 사망에 따른 분노로 거리를 메웠던 시위대의 규모는 점차 줄어들고 있고 대신 미국 의회에서 경찰 개혁(police reform)을 목적으로 한 법안 발의와 심의 및 표결이 진행되는 제도화 양상으로 그 흐름이 변해가고 있음

플로이드 사망에 따른 분노로 거리를 메웠던 시위대의 규모는 점차 줄어들고 있고 대신 미국 의회에서 경찰 개혁(police reform)을 목적으로 한 법안 발의와 심의 및 표결이 진행되는 제도화 양상으로 그 흐름이 변해가고 있음

◆ 민주당 주도의 경찰 개혁 법안은 주로 목 누르기(chokehold) 등 경찰의 과잉 진압 방식에 대한 연방 차원의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위 전국화 접근(federalization)에 근거하고 있음. 반면 공화당 내 유일한 흑인 상원 의원인 스콧(Tim Scott, R-SC)에 의해 주도된 공화당의 개혁 법안은 과잉 진압 방법을 금지 및 자제하는 지방 경찰에 대해 연방 지원을 증액해 주는 소위 지방 주도의 인센티브 접근(incentivization)에 기초하고 있음

◆ 이는 여타 정책의 개혁에 대한 일반적인 민주당과 공화당의 인식과 접근 차이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데 광장에서 진행된 항의 시위가 의사당 내 제도권 진입으로 변해가는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음. 이렇게 되면 정의 요구 및 분노 폭발 등의 시민 주도 광장 정치보다는 정당 경쟁 및 표 대결 등으로 이루어지는 제도 정치로 점차 논의의 핵심이 옮겨 가게 됨. 결국 경찰 개혁을 둘러싸고 일반적인 미국 정치의 제도화 과정을 밟게 될 가능성이 커짐. 현재 민주당 주도의 경찰 법안이 하원을 예상대로 통과하였지만 상원에서 필리버스터(filibuster)를 막을 60표 확보는 요원한 상황이므로 초당파적인 경찰 개혁 법안이 미국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현재 민주당 주도의 경찰 법안이 하원을 예상대로 통과하였지만 상원에서 필리버스터(filibuster)를 막을 60표 확보는 요원한 상황이므로 초당파적인 경찰 개혁 법안이 미국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 인종 차별 반대 시위가 의회 내 개혁 법안 공방으로 전환되는 사이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 준 문화 전쟁(culture war)식 접근법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임기 내내 정치 양극화 현상을 증폭시키고 자신

트럼프는 억압적 경찰 행태에 대한 미국 시민들의 비판과 반대에 대해서도 1960년대 말 닉슨이 즐겨 사용했던

“법과 질서(law and order)” 슬로건에 근거하여 전통적 인종 대결적 대응을 취하고 있음

트럼프가 집착하는 양극화 의존적 정치 스타일이 2016년 대선에 이어 올해 대선에서도 유리하게 작동할지 혹은 양극화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문화 전쟁 정치에 대해 유권자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거부감을 보이는 새로운 정치가 등장할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임

의 적극 지지층 위주의 정치(base politics)에 치중해 온 트럼프는 억압적 경찰 행태에 대한 미국 시민들의 비판과 반대에 대해서도 1960년대 말 닉슨이 즐겨 사용했던 “법과 질서(law and order)” 슬로건에 근거하여 전통적 인종 대결적 대응을 취하고 있음

- ◆ 그런데 이러한 트럼프의 소위 문화 전쟁 스타일 대응이 이전처럼 지지층을 결집하는데 쉽게 성공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음. 특히 대학 교육 이상을 받은 교외(suburban) 지역 보수 백인 여성 유권자 그룹의 이탈 조짐이 커지고 있는데 이들은 실제로 2018년 중간 선거에서 경합 하원 지역구 승패를 결정하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 바 있음. 트럼프가 집착하는 양극화 의존적 정치 스타일이 2016년 대선에 이어 올해 대선에서도 유리하게 작동할지 혹은 양극화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문화 전쟁 정치에 대해 유권자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거부감을 보이는 새로운 정치가 등장할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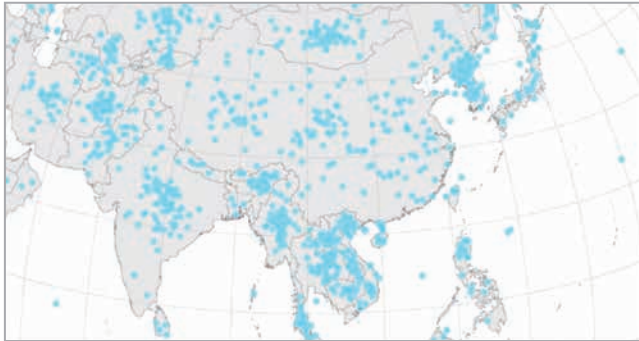
IV. 미국 대선과 한반도 이슈: 오래된 위기와 오래된 정치?

- ◆ 미국 정치학계의 연구 흐름은 대선 관련 이전의 “낮은 대외 정책 비중”에서 현재의 “낮지 않은 대외 정책 비중”으로 진행되어 옴. 예를 들어 2차 대전 이후 약 20년 동안은 “Almond-Lippmann Consensus”가 주류적 분석이었는데 그 내용은 1) 대외 이슈에 대한 여론은 변화무쌍 하므로 안정적 정책 결정의 근거로 삼을 수 없고 2) 일관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고정 선호가 부재(non-attitudes)하므로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없다는 것이었음. 결론적으로 대외 정책은 여론 혹은 선거와 큰 상관성이 없다고 알려졌음
- ◆ 이에 대한 반론 연구는 1960년대 중반 이후 베트남 전쟁의 실패로 촉발되었는데 주된 논점은 1) 미국 유권자들이 대외 정책 이슈의 구체적 사항(detail)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으로 인정되지만 2) 대외 정책의 큰 흐름 및 방향(direction)에 대해서는 대체로 알고 있고 또한 대선에서 선택 기준으로 작용한다는 것임
- ◆ 아래는 구체적 예시인데 왼쪽 그림처럼 2017년 북핵 위기 당시에도 북한의 위치를 아는 미국 국민들이 약 1/3 정도 밖에 되지 않음. 하지만 오른쪽 정책 선호 변화 추세는 미국 국민들이 북한 이슈에 대한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민감하다는 점을 보여 줌(서정건 2019). 트럼프처럼 여론에 민감한 대통령 경우 트럼프 자체보다 미국 여론을 움직이는 노력도 경주해야 할 것임. 미국 정치학계의 이전과 현재 연구 흐름에 비추어 볼 때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는 대외 정책이 대내 이슈에 비해 미국 대선에 미치는 영향력이 있는가 없는가 여부가 아니라 대외 정책은 미국 선거에서 “언제, 어떻게, 왜” 중요해지는가 여부에 대한 판별이라고 할 수 있음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는 대외 정책이 대내 이슈에 비해 미국 대선에 미치는 영향력이 있는가 없는가 여부가 아니라 대외 정책은 미국 선거에서 “언제, 어떻게, 왜” 중요해지는가 여부에 대한 판별이라고 할 수 있음

북한 위치에 대한 미국 국민들 설문 조사 결과



출처: 2017년 7월 5일, The New York Times

북한 핵 위기 해법에 대한 미국 국민들 설문 조사 결과

Americans Support for Military Action Against North Korea

If the United States does not accomplish its goals regarding North Korea with economic and diplomatic efforts, would you favor or oppose using military action against North Korea?

	Favor %	Oppose %	No opinion %
Sep 6-10, 2017			
U.S. adults	58	39	4
Republicans	82	16	3
Independents	56	40	4
Democrats	37	61	3
Sep 6-10, 2017			
U.S. adults	47	48	5
Republicans	59	35	6
Independents	41	54	5
Democrats	41	54	5

출처: Gallup

1. “언제” 중요해지나?: “출혈(出血)이 있으면 보도가 된다(If it bleeds, it leads)”라는 표현은 미국 언론의 대외 이슈 보도 행태가 전쟁이나 테러 등 대규모 안보 위기에 치우쳐 있음을 지적함. 다시 말해 대외 이슈의 경우 언론의 집중적 보도가 있을 때만 대선의 변수가 될 수 있음

2. “어떻게” 중요해지나?: 만일 언론의 대대적 보도가 있더라도 두 정당 후보들 간에 분명한 접근법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대선에 영향을 미치지 쉽지 않음. 관심 대상이 된 이슈에 대해 트럼프와 바이든의 입장이 충분히 다를 때 대선에서 중요해 질 수 있음
3. “왜” 중요해지나?: 2020년 대선처럼 현직 대통령이 재선을 노리는 경우 대통령은 정책 성공을, 도전자는 정책 실패를 부각시키고자 노력함. 만일 경제 이슈와 관련하여 대통령이 성과를 거둔 경우 야당 후보 입장에서는 비판 공세를 펼칠 대체 이슈를 찾아야 하고 이때 국제 이슈가 부각될 수 있음. 혹은 바이든처럼 외교 안보 이슈에 나름 경력을 가진 후보인 경우 대외 정책과 관련된 입장표명을 더욱 자주 하게 될 것임

전쟁이나 대규모 인질 사태 등 언론이 연일 보도함으로써 유권자들에게 깊이 인식되고 두 정당 후보 간 접근법 차이가 극명한 경우 대외 정책이 대선에 영향을 미치게 됨을 알 수 있음

◆ 아래 표는 올드리치와 공동 연구자들(Aldrich et al 1989, 136)이 행한 대외 정책과 대통령 선거의 상관성 관련 대표적 연구 결과인데 대외 정책 중요성과 후보자 간 입장 차이를 양 축으로 삼아 4가지 유형을 만든 것임. 대외 정책이 중요하고 양 정당 후보 간 정책 차이가 컸던 선거로는 한국 전쟁 관련 1952년 선거, 베트남 전쟁 관련 1972년 선거, 그리고 이란 인질 사태 관련 1980년 선거를 예로 들 수 있음. 다시 말해 전쟁이나 대규모 인질 사태 등 언론이 연일 보도함으로써 유권자들에게 깊이 인식되고 두 정당 후보 간 접근법 차이가 극명한 경우 대외 정책이 대선에 영향을 미치게 됨을 알 수 있음

Figure 1. A Typology of Elections and Foreign Policy Issues

	Small Difference Between Candidate Stances	Large Difference Between Candidate Stances
Low Salience and Accessibility	Low Effect of Foreign Issues 1976	Low to Some Effect 1956?
High Salience and Accessibility	Low to Some Effect 1976	Large Effect 1972 1952? 1950 1964? 1984

출처: Aldrich et al 1989, 136

- ◆ 대외 이슈와 대선 영향력 분석 중 중요한 두 번째 요소는 현직 대통령 혹은 도전자 후보가 얼마나 외교 이슈를 국내 정치화(Americanization)하느냐 여부라고 할 수 있음. 현직 대통령은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대외 이슈를 국내 정치 쟁점화하기 마련이고 도전하는 상대당 후보는 대통령의 대외 정책 실패를 부각시켜 자신에게 표가 쏠리도록 시도할 것임. 그런데 외교 정책은 대부분 대통령이 주도하게 되므로 성공과 실패 모두 현직 대통령에게 귀속되는 경향이 있음
- ◆ 사실 북한 핵 문제를 포함한 미국의 대외 이슈는 올드리치 교수의 salience(중요도)와 accessibility(접근성) 차원이 확보되어야 그 영향력을 분석하는 것이 의미를 가짐. 다시 말해 대외 이슈 그 자체보다는 그 이슈가 미국 국내적으로 얼마나 중요하고 또한 집중적으로 다루어지는지가 관건인데 현재의 북한 이슈는 두 요소 모두 충족되지 않고 있음. 더욱이 COVID-19 사태 이후 북한을 포함한 대외 안보 이슈는 거의 사라졌고 국민 보건 이슈 및 경제 회복 이슈에 온통 관심이 쏠려 있는 상화임. 이러한 국면에서 북한 이슈를 갑자기 꺼내는 것은 트럼프나 바이든 모두 ‘국민과의 엇박자(out-of-touch)’ 위험을 높이는 자충수가 될 것임
- ◆ 다만 올해 하반기에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안정된 이후 만일 북한이 중요도와 접근성을 모두 충족하는 이슈로 부상한다면 논의가 달라질 수 있음. 핵을 탑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위협이라는 salience 차원과 폭스 뉴스를 포함한 보수 미디어에서 안보 위기를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accessibility 차원이 갖추어 진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주목하고 이를 해결하는 경우 그 성과가 박빙의 대선 경쟁에 승부처가 될 가능성도 없지 않음. 결국 올해 대선에서의 북핵 문제 비중은 위기 고조(escalation)와 문제 해결(problem-solving) 차원이 비교적 단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비로소 커질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음

*대외 이슈 그 자체보다는
그 이슈가 미국 국내적으로
얼마나 중요하고 또한
집중적으로 다루어지는지가
관건인데 현재의 북한 이슈는
두 요소 모두 충족되지
않고 있음*

*북한 이슈를
갑자기 꺼내는 것은
트럼프나 바이든 모두
‘국민과의 엇박자(out-of-
touch)’ 위험을 높이는
자충수가 될 것임*

*트럼프 대통령은 하반기에
올해 대선을 자신에 대한
‘신임 투표(Trump election)’
보다는 상대 후보 바이든
(Biden)과의 비교를 유도하는
‘선택 선거(choice election)’로
전환시키기 위해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됨*

V. 2020년 미국 대선: 새로운 위기와 새로운 선거?

- ◆ 앞서 살펴본 대로 본인의 잘못된 선택을 끝까지 고집하는 성향이 이전의 실패한 대통령들보다는 상대적으로 덜한 트럼프 대통령이지만 마스크 착용 거부, 분열적 정치 스타일 등의 경우로 보면 크게 예외가 아닐 수도 있음. 트럼프 대통령은 하반기에 올해 대선을 자신에 대한 ‘신임

만일 코로나 치료제 혹은 백신이 개발되고 하반기 들어 급격한 경제 회복 조짐이 나타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위에서 나열한 분열적 선거 캠페인과 더불어 이전의 경제 실적을 근거로 코로나 위기는 일시적 현상임을 주장하고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큼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사안은 2020년 6월 현재 경합주를 포함 전국에서 트럼프가 바이든에게 밀리는 여론 조사 결과가 속속 발표되고 있지만 당장 2016년 경우에도 여론 조사는 마찬가지로 트럼프에게 불리했고 지난 4년간 여론 조사 기법이 극적으로 개선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여름 기간 두 후보 간 지지율 격차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아도 무방함

만일 현재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바이든 후보가 9월과 10월 두 달 선거 캠페인 동안 수차례의 결정적 실수 및 실언을 통해 실망감을 증폭시킨다면 2016년 대선처럼 민주당 지지층 동원에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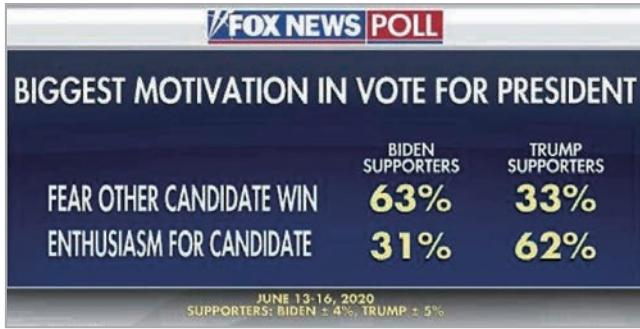
투표(Trump election)' 보다는 상대 후보 바이든(Biden)과의 비교를 유도하는 '선택 선거(choice election)'로 전환시키기 위해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됨. 앞서 지적한대로 클린턴, 부시, 오바마 대통령은 이러한 전략을 효과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모두 재선에 성공한 사례라고 볼 수 있음

◆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좌파 급진 세력이 경찰에 대한 재정 지원을 아예 중단(defunding)하자고 주장한다는 점, 바이든 차남인 헌터(Hunter Biden)가 우크라이나 및 중국에서 아버지 명성을 이용하여 손쉽게 거액을 벌어들인 점, 코로나 위기로 미국 국민들의 경제 상황이 어려운데 민주당은 여전히 장벽 건설을 반대하고 이민 포용을 원한다는 점 등을 트럼프는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자신의 지지층을 동원하고 경합주에서 승리한다는 전략을 추진할 것으로 보임

◆ 만일 코로나 치료제 혹은 백신이 개발되고 하반기 들어 급격한 경제 회복 조짐이 나타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위에서 나열한 분열적 선거 캠페인과 더불어 이전의 경제 실적을 근거로 코로나 위기는 일시적 현상임을 주장하고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큼. 결국 하반기에 주식 시장 및 고용 상황이 좋아진다는 경제 지표 발표가 가능하다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재선을 노려 볼 만하다고 믿게 될 것임

◆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사안은 2020년 6월 현재 경합주를 포함 전국에서 트럼프가 바이든에게 밀리는 여론 조사 결과가 속속 발표되고 있지만 당장 2016년 경우에도 여론 조사는 마찬가지로 트럼프에게 불리했고 지난 4년간 여론 조사 기법이 극적으로 개선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여름 기간 두 후보 간 지지율 격차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아도 무방함. 실제로 1988년 대선에서도 듀카키스(Dukakis) 민주당 후보는 조지 부시(George H. W. Bush) 부통령에게 여름 당시 15퍼센트 이상 앞서가고 있었지만 결국 11월 대선에서 완패한 역사적 사실이 있음

◆ 또한 결정적으로 아래 폭스 뉴스 여론 조사에서 밝혀진 대로 공화당 지지층의 트럼프 충성도는 매우 높은 반면 민주당 지지층의 바이든 후보 충성도는 그리 높지 않음. 다시 말해 바이든을 지지한다기 보다 트럼프를 싫어한다는 것인데 만일 현재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바이든 후보가 9월과 10월 두 달 선거 캠페인 동안 수차례의 결정적 실수 및 실언을 통해 실망감을 증폭시킨다면 2016년 대선처럼 민주당 지지층 동원에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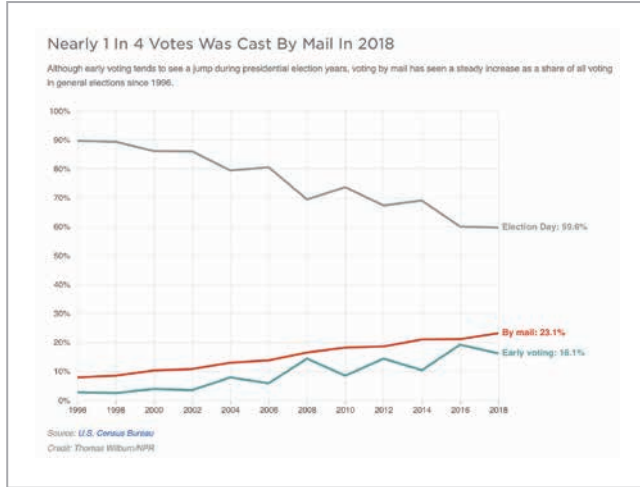
출처: Fox News Channel

- ◆ 결국 거울의 양면과 같이 바이든 캠페인 입장에서는 바이든 후보의 실책을 막고 올해 대선을 반(反)트럼프 선거로 끌고 가는 것이 최대 관건이 될 것임. 2016년 대선이 그 동안 경제적 및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왔다고 울분을 품었던 저소득-저학력 백인 노동자 계층이 자신들의 분노를 트럼프 지지로 표출한 선거였다면 2020년 대선은 양극화를 부추기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심판 선거로 몰고 갈 계획임
- ◆ 더불어 8월 초 발표 예정인 부통령 러닝메이트를 흑인 여성 정치인으로 낙점하고 가을 선거 캠페인에 오바마 대통령과 미셸 오바마의 전폭적 지원을 통해 미시건의 디트로이트, 위스콘신의 밀워키, 펜실베이니아의 필라델피아 등 경합주 도심 지역의 흑인 유권자들 투표 독려에 총력을 기울이게 될 것으로 보임. 특히 코로나 이전 상황에서 치러진 경합주 미시건(Michigan) 민주당 후보 경선 당시 투표율이 2016년에 비해 증가하였고 모든 카운티에서 바이든이 완승한 점은 민주당의 대권 탈환 기대를 고조시킨 바 있음
- ◆ 한편 코로나 비상 상황에서 2020년 대선의 최대 쟁점은 우편 투표(mail-in vote) 확대 및 선거 공정성 시비가 될 것으로 예상됨. 아래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 선거 경우 우편 투표 비율이 2018년 중간 선거 당시 4표 중 1표에 달할 정도로 높아진 것이 사실임. 우편 투표에 대해 엄청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도 실제로 올해 플로리다(Florida) 프라이머리에 부재자 우편 투표를 한 바 있음

2016년 대선이 그동안 경제적 및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왔다고 울분을 품었던 저소득-저학력 백인 노동자 계층이 자신들의 분노를 트럼프 지지로 표출한 선거였다면 2020년 대선은 양극화를 부추기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심판 선거로 몰고 갈 계획임

특히 코로나 이전 상황에서 치러진 경합주 미시건(Michigan) 민주당 후보 경선 당시 투표율이 2016년에 비해 증가하였고 모든 카운티에서 바이든이 완승한 점은 민주당의 대권 탈환 기대를 고조시킨 바 있음

한편 코로나 비상 상황에서 2020년 대선의 최대 쟁점은 우편 투표(mail-in vote) 확대 및 선거 공정성 시비가 될 것으로 예상됨



출처: U.S. Census Bureau

문제는 현재 미국의 각 주(state)들이 코로나 위기 대처 방식의 하나로 우편 투표 제도를 대폭 도입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11월 3일 대선 당일 승패 여부가 가려지지 않고 폭증한 우편 투표 개표 지연으로 인해 결과 발표가 수일에서 심지어 수주 미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음

결론적으로 올해 미국 대선은 코로나 사태라는 새로운 위기, 인종 차별 반대 시위라는 오래된 위기, 우편 투표 확대라는 새로운 선거 등 다양하고 복잡한 요소가 중첩된 예측 불허의 선거가 될 것으로 전망됨

- ◆ 문제는 현재 미국의 각 주(state)들이 코로나 위기 대처 방식의 하나로 우편 투표 제도를 대폭 도입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11월 3일 대선 당일 승패 여부가 가려지지 않고 폭증한 우편 투표 개표 지연으로 인해 결과 발표가 수일에서 심지어 수주 미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음. 그런데 이러한 경우 주로 도시 지역의 우편 투표수가 많기 때문에 개표 또한 오래 걸리게 될 것이고 선거 개표가 진행되면서 도시 지역에서의 민주당 몰표가 나올 확률이 큼.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후보에게 역전 당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 ◆ 과연 트럼프가 이러한 개표 상황에 대해 순순히 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벌써부터 미국 정치권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음. 트럼프가 승복하지 않고 열혈 보수 지지자들이 반대 시위를 계속한다면 미국 대선 이후 사회적 혼란상은 극에 달할 것으로 보임. 다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트럼프 지지 시위의 동력이 떨어질 것이고 공화당 지도부가 트럼프와의 거리두기를 급격히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추후 정리가 될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음
- ◆ 결론적으로 올해 미국 대선은 코로나 사태라는 새로운 위기, 인종 차별 반대 시위라는 오래된 위기, 우편 투표 확대라는 새로운 선거 등 다양하고 복잡한 요소가 중첩된 예측 불허의 선거가 될 것으로 전망됨

참고문헌

- Aldrich, John H. John L. Sullivan and Eugene Borgida. 1989. "Foreign Affairs and Issue Voting: Do Presidential Candidates "Waltz Before A Blind Audience?"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83, No. 1 (Mar, 1989), pp. 123-141
- Cha, Taesuh and Jungkun Seo. 2018. "Trump by Nixon: Maverick Presidents in the Years of U.S. Relative Declin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30(1):79-96
- Seo, Jungkun, Young Hwan Park, and Alex Soohoon Lee. 2019. "South Korea and the 2016 US Presidential Elections: A Security-Trade Nexus Redefined?" Jesús Velasco ed. American Presidential Elections in a Comparative Perspective: The World Is Watching (Lanham, MD: Lexington Books)
- 서정건 편. 2020. 『미국 국내정치와 외교정책』 (세계 정치 32호: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 서정건. 2019. 『미국 정치가 국제 이슈를 만날 때: 정쟁은 외교 앞에서 사라지는가 아니면 시작하는가』 (서울: 서강학술총서)
- 서정건, 유성진, 이재묵. 2017. 『미국 정치와 동아시아 외교 정책』 (경희대학교출판부)

❖ 저자 약력

■ 서정건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한 후 미국 텍사스 오스틴 대학교에서 미국 의회 및 정당 정치와 외교 정책을 주제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교(윌밍턴) 교수(2007-2012)와 우드로우 윌슨 센터 풀브라이트 펠로우(2019)를 지냈고 현재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 <미국 정치가 국제 이슈를 만날 때(서강학술총서)>와 공저로 <미국 국내정치와 외교정책(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미국 정치와 동아시아 외교정책(대한민국 학술원 우수도서)> 등이 있고 "The China Card: Playing Politics with Sino- American Relations," "Wedge Issue Dynamics and Party Position Shifts: Chinese Exclusion Debates in the post-Reconstruction US Congress, 1879-1882," "미국 국내 정치와 북한 비핵화 이슈," "트럼프 행정부와 미국 외교의 잭슨주의 전환" 등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기획 및 감수: 정승철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편집: 김애리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24 (63546)
전화: 064) 735-6500 팩스: 064) 738-6522
E-mail: policyforum@jpi.or.kr <http://www.jpi.or.kr>

『JPI정책포럼』에 게재된 의견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ISSN: 2005-9760